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에 나타난 주권 그리고 별거벗은 생명*

김 재 철

한성대학교

어느 시대에나 주권 권력이 부여된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국부’(國父)라는 ‘성인전’(聖人傳)식의 형용어구는 [...] 그 기원적인 음산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¹

I. 초서의 이야기로부터 주권의 문제로

그녀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위로부터 들고는 이를 법정에서 아직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재판장에게 내보였다.

Hir fader, with ful sorweiful herte and wil,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¹ “The hagiographic epithet ‘father of the people,’ which is reserved in every age to the leaders invested with sovereign authority [...] acquires its originary, sinister meaning” (Agamben 88-89).

Hir heed of smoot, and by the top it hente,
 And to the juge he gan it to presente,
 As he sat yet in doom in consistorie. (VI.254-257)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목을 참(斬)한 후 그것을 머리채로부터 쥐고 법정으로 향한다. 딸의 머리에는 아직도 선혈이 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윽고 이 아버지는 마치 딸의 생명에 대하여 자신이 행사한 권력을 보이듯 딸의 머리를 한 재판장에게 내어 놓는다.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The Physician’s Tale”)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위를 그 서사의 정점에 일종의 스펙타클로 제시한다. 더욱이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그가 행한 ‘생사여탈권’(vitae necisque potestas)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한다. 본고는 「의사의 이야기」에 재현된 이러한 극단적인 폭력과 그에 대한 정당화가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의 배경에는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에 재현되어 있는 일련의 폭력 이면에는 ‘주권’(sovereignty)의 문제가 존재한다.²

그동안 「의사의 이야기」는 초서의 저작들 중 잘 읽혀지지 않거나, 종종 비평가들에게 폄하당해 왔다. 이를테면 그것은 “가장 재미없고 가장 실패한 이야기”(least interesting and least successful efforts) 혹은 기껏해야 “이류”(second rate)의 이야기였다.³ 그동안 이 불안으로 가득 찬 서사는 무언가 제대로 설명될 수 없는 광기와 부조리함을 내포하고 있었고, 현실과의 개연성을 맺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사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오래된 편견 중 하나는 이야기가 ‘탈정치’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딜러니(Sheila Delany)의 영향력 있는 비평을 통해 공인되었다. 부연하자면,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는 원래는 리비우스(Titus Livius) 저작의 번안물인데, 리비우스의 원전은 로마시대의 정치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이야기로서 특히 사회의 계급 문제, 즉 십대관(decemvirs)과 평민

² 슈미트(Carl Schmitt)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16)라고 정의하는데 근거하여, 본고는 ‘주권’이라는 말은 법제적 질서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배제적’으로 기능하여 예외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고 정의한다. 언급된 슈미트의 ‘주권’에 관한 정의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논의로는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호모 사케르』(Homo Sacre)의 제1부 「주권의 논리」(“The Logic of Sovereignty”) 부분을 참조(13-67).

³ Delany 47; Hoffman 22; Ramsey 185.

(plebs)들 간의 갈등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의 정치성이 초서가 직접적으로 참조하였으리라 믿어지는 드 땡(Jean de Meun)의 저작에서는 탈역사화를 통해 이미 상당수 축약되었고,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에 와서는 그러한 로마시대의 계급갈등이 거의 텍스트의 표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Delany 48-50). 이러한 견해는 비판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리비우스의 텍스트의 기반이 되는 로마시대의 계급갈등이 초서의 번안에서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계급갈등의 문제가 이야기의 표면에서 제거되었다고 해서 초서의 개작이 정치성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한 읽기는 원전 생산의 배경이 되는 로마시대의 계급문제를 텍스트의 '유일한' 정치성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십대관과 평민사이의 갈등을 축약하는 과정을 통해 초서는 이야기를 더욱더 정치적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초서의 이야기는 "주권"이 지닌 좀 더 보편적 문제를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 이야기」는 권력이 생명을 통제하는 한 양식을 보여주며, 주권의 논리와 메커니즘을 재현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의 입구로 인도한다. 즉 아감벤이 "정치적 영역을 시민권 자유의지 및 사회계약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는 근대적 관습법과는 반대로 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로지 벌거벗은 생명만이 진정으로 정치적이다"(Contrary to our modern habit of representing the political realm in terms of citizens' rights, free will, and social contract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vereignty *only bare life is authentically political*)라고 했다면, 그야말로 초서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106).⁴ 왜냐하면 이야기가 주권과 그것에 의해 '법적, 정치적, 공동체적인 삶'(bios)을 박탈당한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⁵

⁴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 대한 본고의 인용은 모두 영역본으로 부터이지만, 그것의 한국어 번역은 이태리어 원전으로부터 번역된 박진우의 국역본을 참고하였다.

⁵ 고대 그리스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가 단어가 있었다. 먼저 '조에'(zōē)는 언어, 법, 공동체, 이전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제한되지 않은 삶으로서의 동물과, 인간, 신이 지닌 생명력 전환을 지시한다. 다음으로는 비오스(bios)이다. 이는 언어, 법, 공동체적인 삶을 말하는 단어이다. 비오스의 영역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폴리스이다. 아감벤의 이론의 핵심은 조에와 비오스 사이의 균열인데,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을 정치적 인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에 주목한다.

흔히 “정치신학”이란 사회,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한 정치 전반의 문제를 신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주 국민국가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한 지식체계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해밀(Graham Hammill)과 럽턴(Julia Lupton)에 따르면 국민국가(nation-state) 등장이전 시기의 정치신학은 국가 통치체의 형성뿐 아니라 길드의 운영, 집안의 경영, 그리고 심지어는 축산학에까지 널리 적용되는 광의의 지식체계로 종교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 협정 및 논쟁 총체를 지시하는 말이다. 특히 정치신학은 “신성한 서사와 주제들 그리고 군주, 행정기관, 의회 등의 주권을 확립·합법화하고, 반영하기 위한 전례식의 형식들”(sacred narratives, motifs, and liturgical forms to establish, legitimate, and reflect upon the sovereignty of monarchs, corporations, and parliaments) 전체에 녹아있는 것이었다(Hammill and Lupton 1-2). 이러한 광의의 정의에서 비추어 「의사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읽혀 질 수 있다.⁶ 왜냐하면 그 서사가 기독교적인 교리를 전달하는 ‘전례(前例)적 훈화(exemplum)’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종교와 정치를 연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야기는 정치적 폭력성을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며,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육체에까지 깊이 스며드는지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는 그 특이한 담론적인 성격 때문에 혹은 신체의 ‘통제(control)’와 관련된 이야기로 읽혀지곤 했고, 일견 그것은 근대적인 개념의 ‘감시’와 ‘시선의 정치학’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귀공들의 딸을 맡아 훈육하는 노년의 부인들이여 내말을 불쾌히 여기시지 마시오. 당신이 공들의 여식을 맡아 훈육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오. 먼저는 당신이 정직한 정조를 지켰기 때문이고, 아니면 당신이 일탈했었지만, 예전 비행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영원히 과거의 불행함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들의 딸들에게 덕성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마시오.

⁶ 헬렌 쿠퍼(Helen Cooper)의 경우 「의사의 이야기」의 장르를 “전례적 훈화”라고 구분한다. 하지만 쿠퍼가 지적했듯,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할 것은 이러한 전례적인 서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모범적인 ‘예’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248-49).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의사의 이야기」는 어떠한 종교교의를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나, 그러한 종교적 교의가 ‘몸의 통제’라는 정치적인 명제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d ye maistresses, in youre olde lyf,
 That lordes doghtres han in governaunce,
 Ne taketh of my wordes no displesaunce.
 Thinketh that ye been set in governynges
 Of lordes doghtres oonly for two thynges:
 Outher for ye han kept youre honestee,
 Or elles ye han falle in freletee,
 And knowen wel ynough the olde daunce,
 And han forsaken fully swich meschaunce
 For everemo; therefore, for Cristes sake,
 To teche hem vertu looke that ye ne slake. (VI. 72-82)

인용된 부분은 작가 초서의 자전적인 요소와 관련된 부분으로, 초서의 아내 필리파(Philippa)의 누이였던 캐더린 스윈포드(Katherine Swynford)와 결부되어 해석되어 왔다. 곤트공(John of Gaunt)이 자신의 아이들의 여자 가정교사(governess)였던, 또한 후에 곤트의 세 번째 아내로 랭카스터의 공작부인이 되는 스윈포드와 밀통한 것이 결국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예를 남기리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초서 역시 당시의 궁정담화에 익숙하였고, 그러한 우려를 의식하여 위의 글을 남겼을 것이다.⁷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저자로서 초서의 삶’이라는 텍스트 외부적인 요소를 특권화하지 않으면, 인용된 짧은 훈화는 근대적인 훈육통치와 결부되어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초서의 시가 18세기 이후에 형성된 ‘훈육’과 ‘감시’의 정치를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권력이 육체 위에 행사되는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⁸ 특히 이러한 ‘감시’(surveillance), ‘응시’(gaze), ‘훈육’(discipline) 등을 강박적으로 맴도는 생명정치적인 서사가 ‘의사’라는 화자에 의해 전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란 몸

⁷ Farber 154; Middleton 19-20 참고.

⁸ 고전의 시대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등장한 감시와 훈육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워드 블록(R. Howard Bloch)은 푸코의 관점에 기반하여 「의사의 이야기」를 버지니아의 육체에 행사되는 ‘응시’(gaze)와 폭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푸코적 관점의 훈육 시설(가령 감옥)에 대한 논의는 법제적 장치만을 다룸으로써, ‘수용소’와 같은 법질서에서 배제된 공간을 분석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생명정치적 공간과 관련하여 후자와 같은 초법적 공간에 좀 더 주목한다.

을 가장 잘 관찰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생명정치적 담론이 생산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의사의 담론이 근대적 혼용체계를 예고한다는 식의 다소 해묵은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여 살펴 보아야할 점은 「의사의 이야기」가 단지 주체 생산에 대한 담화일 뿐 아니라, ‘주권’과 그것이 생명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논의라는 점이다. 특히나 「의사의 이야기」에 ‘주권’이라는 단어(*sovereign, sovereignty*)가 자주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VI.9.91.136). 또한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면역/면책’(*immunity*)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존재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면역/면책’권은 최근 생명정치에 관한 이론들이 논의하듯 주권과 가장 가까운 속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주권과 마찬가지로 면역/면책의 메커니즘은 배제와 포함의 원리를 통해 공동체의 경계(境界)를 ‘결정’하는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⁹ 더욱이 우리는 초서가 「총서시」(“The General Prologue”)에서 의사를 소개하며 그가 “성서에는 무지하였다”(His studie was but litel on the Bible, I.438)라고 말하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비록 초서의 의사가 “자연”(Nature, VI.9.11.29.31)이라는 신(神)의 대리인에 관한 논의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그는 신학적 체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사는 그가 평생 관찰한 ‘몸’이라는 ‘물질성’의 견지에서 ‘신학적 관점’을 ‘세속화’하려고 한다. 즉 호프만(Richard L. Hoffman)이 지적했듯 의사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결국 육체이지 마음이나 영혼이 아니다(31). 그는 단지 신체에 미치는 세속적 권력을 신학적 담론으로 포장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주권이 ‘비오스’(*bios*)—즉 정치적인 생명—를 ‘조에’(*zōē*)—정치적인 생명을 결여한—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초서

⁹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에 따르면 ‘면역/면책’의 권력은 주권의 권력과 유사한 양태를 지닌다. ‘면역/면책’의 특성은 ‘공동체’(*community*)를 긍정하는데 왜냐하면 ‘면역/면책’의 권력은 공동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면역/면책의 권력은 공동체를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면책의 권력자체가 ‘공동의 것’(*the common*)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주권이 공동체에 포함되어 그것을 보호하는 권력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에 예외성으로 기능하여 공공의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원리와 유사하다(45-77). 이러한 사실은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면책특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의 「의사의 이야기」는 ‘주권’과 죽여도 처벌 받지 않는 ‘별거벗은 삶’(bare life)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II. 자연, 아름다움, 피조물 그리고 주권의 논리

정치신학이 지나는 역사성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치신학을 근대적인 주권의 논리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체계로 이해한다. 즉 그것은 항상 근대성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아감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연구자의 논의는 그러한 통념을 재고하게 하고 사실상 정치신학의 역사(즉 주권의 탄생과 그 영향력의 행사)를 고대시대까지 끌어올린다. 고대시대의 주권적 권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호모 사케르’(Homo Sacer)였다. 호모 사케르는 잘 알려져 있듯이 “살해할 수는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the life that may be killed but not sacrificed, 107)이며, 그것은 역설적으로 주권 권력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고대시대에 호모 사케르의 흔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추방령 늑대’(werewolf)이다. 이들은 원래 공동체에 ‘속했으나,’ 어떠한 금기시되는 행동의 결과로 공동체와 그 질서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이다. 공동체에 속하는 자들은 이들을 죽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늑대인간이라고 불리는 추방된 삶들은 “짐승과 인간, 피시스와 노모스, 배제와 포함”(between animal and man, *physis* and *nomos*, exclusion and inclusion) 사이에 놓여 “비식별자이자 이행의 경계선”(a threshold of indistinction and of passage, 105)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인 삶’(bios)을 박탈당한 존재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삶의 형식을 가능케 하는 권력(즉 예외성을 결정하는 초법적인 주권)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감벤은 “늑대 인간 혹은 인간의 늑대가 도시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은 주권자라는 인격체를 통해서이다”(in a person of the sovereign, the werewolf, the wolf-man of man, dwells permanently in the city, 107)라고 말한다.¹⁰

¹⁰ 늑대인간과 주권자의 존재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이 동일한 주권에 논리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를 아감벤은 마리 드 프랑스(Marie de France)의 단가(lais) 중의 하나인 「비스클라브레」(“Bisclavret”)에서 찾는다. 이는 매주 3일간 늑대인간으로 사는 주권자(통치자)에 관한 이야기로, 주권자와 늑대인간 모두가 초법적인 질

결국 이러한 일련의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원리를 지닌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법체계의 외부에 예외성으로 존재하는 ‘주권’은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법적, 정치적인 생명(*bios*)을 박탈당한 그래서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별거벗은 생명’을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트가 「시원의 단어들에서의 발견되는 이율배반적 의미들」(“The Antithetical Meaning of Primal Words”)이라는 글에서 “*sacer*”라는 라틴어 단어를 분석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¹¹ 이 양가적 단어는 한편으로는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저주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즉 그것은 주권자의 표식으로의 ‘성스러움’을 의미하지만, 주권자의 추방령을 받은 그래서 ‘터부’시 되는 존재를 일컫기도 한다.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양가적이고도 역설적인 주권의 논리에 관하여 재현한다. 이야기는 주권의 창조 섭리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고, 버지니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서사의 상당부분을 할애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아름다움에 관한 장황한 묘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은 주권적인(최고의) 부지런함으로 그녀를 탁월하게 창조하여서, 마치 그 자신이 “보라 나 자연이 이렇게 피조물을 만들고 단장하였다. 누가 나를 묘사 하리오? [...] 그것은 최고의 원리이신 신이 나를 지상의 창조물을 만들고 단장 하는데 있어 그의 총 대리인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같았다.

For Nature hath with *sovereyn* diligence
 Yformed hire [Virginia] in so greet excellence,
 As though she wolde seyn, “Lo! I, Nature,
 Thus kan I forme and peynte a *creature*,
 Whan that me list; who kan me countrefete?
 [...]
 For He [God] that is the formere principal

서에 의해 구성되는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107-108).

¹¹ Freud 159. 아감벤의 프로이트 읽기는 78-79참고. 이러한 호모 사케르가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는 『호모 사케르』의 「신성함의 양가성」(The Ambivalence of the Sacred, 75-80) 부분 참고.

Hath maked me his vicaire general

To forme and peynten erthely *creaturis*" (VI.9-21; 강조첨가)

인용문은 '신'(神)으로부터 '자연'으로 주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그린다. 흔히 통치를 신의 섭리로 정당화하는 대부분의 정치 담화들이 그렇듯 의사는 전능한 주권적 권력의 존재를 상정한다. 「의사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주권의 담지자는 바로 '자연'이며, 그러한 논리를 따라 화자인 의사는 자연이 신과 완전한 일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낀다("My lord [God] and I [Nature] been ful of oon accord"[VI.25]). 그리고 자연은 신으로부터 받은 전능함을 발현하여 버지니아를 자신의 '피조물'—"creature"(VI.12, 21, 27, 34)—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버지니아는 자연의 지음을 받아 어떠한 이도 모사할 수 없는 주권의 '고유성'(the proper)을 체현한다.

인용문에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권'과 '피조물'의 관계이다. 영어의 "creature"라는 단어는 렛틴이 보여주었듯, 일단 "창조자"(creator)와 그의 "창조"(creation)가 분리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적어도 두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데, 먼저는 "creatureliness"와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창조주의 언어를 물질적으로 체현하는 수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creatura*)에 붙어 있는 접미사(-ura)의 가변성이 나타내듯, 창조자의 섭리를 넘어 진화하는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Lupton 161). 하지만 의사의 담론에서 피조물로서의 버지니아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창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기보다는 주권의 속성을 수동적으로 체현한다. 이러한 속성은 후에 그녀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내는 수동성으로 표현된다.

'피조물'로서 주권자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버지니아의 육체는 "사케르"라는 말처럼 성스럽고도 저주받은 것이다. 그녀는 주권의 속성에 따라 '아름다움'과 '덕성'을 체현하고 있으며, 일종의 주권의 표식으로 부여받은 그녀의 성스럽기까지 한 아름다움은 결국 그녀로 하여금 저주받은 존재가 되게 한다. 즉 버지니아의 아름다움은 아피우스로 하여금 단 한 번의 응시를 통해 그녀를 탐하게 만들고, 결국 아버지이자 집안의 주권자인 버지니우스가 그녀를 '면책 살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쉽게 말하면 주권자의 선물인 아름다움이 그녀를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며, 이것이 이야기에 기능하는 주권의 원리이다. 「의사의 이야기」의 일차적인

비평가로서 해리 베일리는 이야기의 결구(結句)이자 「면벌부 판매인의 서시」 (“The Introduction to *The Pardoner’s Tale*”)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운명과 자연의 선물은 많은 이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소. 감히 말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죽음을 가지고 온 것이오.

[Y]iftes of Fortune and of Nature

Been cause of death to many a creature.

Hire beautee was hire deth, I dar wel sayn. (VI. 295-297)

해리 베일리는 이야기에서 주권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버지니아가 신의 대리자인 자연의 피조물로서 주권의 ‘성스러운/저주받은’(sacer) 속성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그녀의 아름다움은 양가성을 지닌 것으로 그것은 주권의 표현물이자 동시에 그녀가 정치적인, 그리고 공통체적인 삶에서 제외된 따라서 ‘별거벗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버지니아를 거룩한 주권의 표현물이자 동시에 저주받은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녀의 ‘처녀성’(virginity)이다.¹²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proper name’)—버지니아, 버지니우스—을 생각하더라도 작품이 얼마나 처녀성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버지니아의 몸은 그녀 이름이 말하듯 처녀성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그의 아버지 버지니우스 역시 처녀성에 대한 집착을 의인화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녀성 역시 작품에서는 일종의 주권의 서명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의사의 이야기」의 화자는 “모든 반란 중 주권적(최고의)인 역병은 / 순결함을 배반하는 것”(Of alle tresons sovereyn pestilence / Is

¹² 이야기와 관련된 처녀성을 가장 잘 분석하는 논문으로는 블록의 「초서의 처녀성」 (“Chaucer’s Maiden’s Head”)이 있다. 논문에서 블록은 「의사의 이야기」에서 ‘처녀성’이 지니는 담론적 범주를 규명하려 하였고 그것에 수반하는 폭력성 즉 아피우스의 응시를 통한 처녀의 육체에 침입과 그에 뒤따른 파괴적인 욕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야기에 강조되는 여성의 순결함에 주목하는 최예정은 초서가 “물질 중심적 세계관을 지니기 쉬운 직업의 인물, 즉 의사의 관점을 이용하여 기독교가 자의적으로 수용되어 육체적 순결만을 강조하는 여성 억압적인 왜곡된 순결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과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것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순결 이데올로기에 내재하는 남성본위성, 가부장적 억압을 고발한다”(132)라고 독해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구별하여, 필자가 처녀성 혹은 순결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체를 ‘거룩하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존재’로 만드는 처녀성이 지니는 ‘양가성’이다.

whan a wight bitrayseth innocence, 91-92)이라고 말한다. 즉 “maidenhead”이라는 말에서 “head”가 암시하듯, 순결함은 어떠한 섬겨야할 주권적 권위와 연관되어 있다.¹³

그녀는 몸 뿐 아니라 영혼이 순결 했는데, 이는 그녀가 겸손과 절제와 함께 처녀성을 꽃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As wel in goost as body chaste was she,
For which she floured in virginitee
With alle humylitee and abstinence (VI.43-45)

이야기에서 ‘아름다움’이 그녀의 육체와 외적 요소를 모두 설명하는 단어라면, 그녀의 영혼과 내적 요소, 즉 “겸손”과 “절제”를 요약하는 것은 그녀의 ‘처녀성’이다. 말하자면 성모(Virgin Mary)의 존재 이래로 ‘성스러운’(Sacer) 처녀성은 기독교적 가치의 집약체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지닌 처녀성은 반대로 그녀를 ‘저주받은’(Sacer) 존재가 되게 한다.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의 『클라리사』(Clarissa)와 하디(Thomas Hardy)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와 같은 작품은 처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간’이라는 폭력과 관련을 맺는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처녀성은 셰익스피어의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서 안젤로(Angelo)가 정숙한 처녀인 이저벨라(Isabella)에게 느꼈듯이 정복욕 혹은 사디즘적인 파괴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역설적으로 처녀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파괴될 때 만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스러운 주권의 표현물로서의 처녀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가 받아들여야하는 폭력 자체가 이야기에 ‘성자전’(hagiography)적인 요소를 더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초서의 성자전은 잔혹하다. 가령 「두 번째 수녀의 이야기」(“The Second Nun’s Tale”)는 평생 순결을 지키고자 신께 기도한 성 세실리아(St. Cecilia)에 관한 이야기로 그녀는 세 번이나 내려치는 칼날에도 목이 잘리거나 죽지도 않는다. 희한

¹³ 초기근대 영국에서 결혼은 처녀성(maidenhead)를 가장(house head)과 교환하는 행위였듯, 신체정치학에 있어 ‘머리’는 주권의 은유였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로부터 최근의 하트(Michael Hart)와 네그리(Antonio Negri)에 이르기까지 ‘주권’에 반발하는 ‘다중’(multitude)들의 반란의 도상학(iconography)은 머리 없는 괴물 혹은 히드라와 같이 머리가 많은 괴물이다(Hill 181; Hardt and Negri 57, 214).

하계도 초서의 이야기에서 ‘처녀성’은 ‘성스러움’ 뿐 아니라 ‘참수’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 셈이다. 이야기에 나타난 처녀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실은 그녀의 처녀성이 버지니아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를 취하도록 정당화해 준다는 사실이다. 『의사의 이야기』에서 버지니아는 자신의 “성스러운/저주받은”(sacer) 처녀성 탓에 아버지의 폭력이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순결의 보석인 딸아 인내심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나의 판결이다. 미움이 아닌 사랑 때문에 너는 죽어야한다. 나의 불행한 손이 너의 목을 내려쳐야 할 것이다.

O gemme of chastitee, in pacience
Take thou thy deeth, for this is my sentence.
For love, and nat for hate, thou most be deed;
My pitous hand moot smyten of thyn heed. (VI.223-226)

이 순간 버지니우스에게 자신의 딸은 처녀성의 집약물로서 인성을 결여한 보석(gemme) 즉 돌일 뿐이다. 그녀의 거룩한 처녀성으로 말미암아 버지니아는 일종의 ‘별거벗은 생명’으로, ‘면책살해’의 대상으로 각인된다. 그러한 논리에 따라 버지니우스는 그녀의 목을 참할 것을 “결단”한다. 버지니아 또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서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는 “내가 처녀로 죽게 되니 신이여 축복받으소서!”(Blissed be God that I shal dye a mayde!, 248)라고 외친다. 즉 그녀는 ‘주권’자로서의 아버지가 자신의 처녀성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버지니아가 주권자 즉 신을 대변하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움과 처녀성은 그녀의 성스러움과 함께 그녀가 저주받았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권의 논리이다.

III. 생사여탈권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가장’(Pater Familias)

우리는 이미 이야기에서 ‘신’으로부터 ‘자연’으로 주권이 옮기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는 버지니우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위치에 서서 자

신의 딸을 ‘성스럽고/저주받은’ 생명으로 만드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이미 언급된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그리고 예외상황이란 “제한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 정지시키는 권한”을 의미한다(24).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가 로마의 ‘법정’(consistorie, 162, 257)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 즉 버지니우스가 버지니아의 생명을 법정외부에서 살해한 후 그녀의 수급을 재판장 앞에 제시하는 것은 마치 버지니우스가 법질서 내부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가 법외부에 존재하여 적어도 딸의 생명에 관해서는 예외성을 행사한다는 역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이야기에서 아피우스는 버지니우스로부터 그의 딸을 빼앗기 위해, 클로디우스라는 악한을 이용하는데, 그는 버지니우스가 “법”과 “평등”을 거슬러 자신의 하녀(버지니아)를 빼앗아 갔다고 ‘소송’(pleyne)함으로써 갈등을 만들어 낸다(180-83). 따라서 그는 아피우스와 공모한 클로디우스의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정에 서야하며 결국 아피우스의 ‘선고’를 받아야할 입장에 있다. 이에 아피우스는 클로디우스와 함께 짜놓은 각본대로 클로디우스가 자신의 하녀(버지니아)를 돌려받을 것이며, 버지니우스는 그녀를 자신의 집안에 둘 수 없다고 판결한다(199-200). 아피우스의 ‘판결’(juris-diction; laws speaking)은 거짓에 기반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로고스적인 권위로 버지니우스를 포획한다. 이러한 아피우스의 행위는 일면 법질서를 왜곡하기에 탈법적이나, 또한 분명 법의 권위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버지니우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피우스가 행사하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리비우스의 원전과 초서의 개작 사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원전에서의 버지니우스가 딸을 법정에서 즉각적으로 살해하지만, 초서의 개작에서는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딸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이다. 이 사적인 영역에서 버지니우스는 주권자 즉 ‘가장’으로 군림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 이외에는 다른 식구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닫힌 공간은 법적·시민적 치리(治理)가 개입하지 못하는 곳이며, 초법적인 공간이 된다. 이곳에서 버지니우스는 아피우스가 버지니아를 더럽히고자하는 현재 상황이 “극한적 긴급상황이 아닌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슈미트 18)한다. 이러한 “결정”권은 주권의 핵심이다. 따라

서 이 가정이라는 내밀한 공간은 마치 아우슈비츠나 관타나모와 같이 주권권력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벌거벗은 생명의 관계로 축소되는 공간이 된다.

물론 아우슈비츠와 로마시대의 사적공간을 비교하는 것은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근래의 학자들이 주권의 고대적 모델을 로마시대의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행사하는 힘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아감벤이 로마의 고대 문헌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 밝혀내듯이 ‘신성화/저주’를 야기하는 범 죄는 주로 사회적 위계를 극단적으로 흐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폭력’(verberatio parentis)이었다. 그러한 질서에 대한 위반은 그를 면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 말하자면 그러한 범 죄는 근원적인 예외를 성립시켰다(85). 따라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곧 주권의 속성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친권과 주권의 속성이 겹쳐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감벤은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일반화시켜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한다.

이 권력[생사여탈권]은 절대적이며, 과실에 대한 처벌로도 또 가정의 우두머리인 아버지의 수중에 있는 보다 일반적인 권한의 표현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이 권한은 오로지 부자 관계에서만 직접 유래하는 것이었다(그것은 아이를 땅에서 들어 올림으로써 자기 아들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획득한다).

This power [*vitae neicisque potestas*] is absolute and is understood to be neither the sanction of a crime nor the expression of the more general power that lie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pater* insofar as he is the head of the *domus*: this power follows immediately and solely from the father-son relation (in the instant in which the father recognizes the son in raising him from the ground, he acquire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over him). (87)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는 친권은 절대적이어서 그것은 ‘생사여탈권’을 포함한다. 탄생의 순간 ‘벌거벗은 생명’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각인되며, 이러한 순수한 권력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주권자로서의 아버지가 갖는 생사여탈권이 일종의 광의적

은유로서 “정치적 권력의 모델 일반을 정의 한다”(define the very model of political power in general, 88)는 점이다.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가 이러한 ‘생사여탈권’과 결부되어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여기이다. 이야기는 주권자로서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전권적이며 무제한적인 폭력성에 관하여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이야기」가 다루는 폭력은 ‘아버지’가 ‘아들’의 별거벗은 육체에 행사하는 생사여탈권과는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력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통상적으로 간통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여자 가솔에 대하여 가장이 가지는 집안내의 ‘재판권’이나 ‘처벌권’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이야기에서 버지니아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녀의 아름다움이 탐욕스러운 시선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사실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버지니우스가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지닌 딸에게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일종의 주권자로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¹⁴ 즉 버지니우스가 행사하는 권력은 가장이 젠더의 경계를 가로질러 딸과 아들 모두에게 행사하는 힘이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군주’(basilikos)로서의 아버지가 지니는 권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집안’(oikos)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일종의 시민적 질서 내부에 포함된 체계이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주권을 설정한다.¹⁶

¹⁴ 호프만이 지적인 바와 같이 아버지 버지니우스와 딸 버지니아의 이름은 단지 성(性)을 구별하는 차이 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자체와 그것의 분리물인 그리스도의 인성(혹은 살)처럼 구분되지만 그 본질은 하나인 동일한 존재인 것과 같다(30). 말하자면 정치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 부녀는 하나이며, 아버지의 주권적 결단을 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

¹⁵ 아리스토텔레스는 “남편이며 아버지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 위에 통치한다”(A husband and father [...] rules over wife and children)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집안 내 아버지로서의 권한과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분리하여, 가장의 “자녀에 대한 군림은 주권자로서이고, 아내에 대한 군림은 입헌적인 지배”(the rule differs, the rule over his children being a royal [basilikos], over his wife a constitutional rule [politikos])에 의해서라고 부연한다(Aristotle 1259b). 이는 결국 아버지가 집안내 자식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은 그가 아내에게 행사하는 권력과는 달리 근원적인 예외성에 기반한 주권적 모델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 따라서 적어도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 행사하는 권력은 폴리스 혹은 시민적 공동체적인 지리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¹⁶ 또한 역으로 칸(Victoria Khan)이 지적했듯이 반대로 ‘집안’을 구성하는 혼례의 언약이 후에 왕당파들과 의회파들이 “적법한 주권”(legitimate sovereignty)의 조건을 논의하기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장 큰 연회실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불러오게 했다. 재와 같이 차갑고 죽은듯한 얼굴을 하고 그녀의 겸손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로서의 연민이 고동쳤다. 비록 그는 자신의 목적을 바꿀 생각이 없었지만, “딸 버지니아야, 죽음과 수치 이 두 가지의 길만이 있구나”라고 말했다.

He gooth hym hoom, and sette him in his halle,
 And leet anon his deere doghter calle,
 And with a face deed as asshen colde
 Upon hir humble face he gan biholde,
 With fadres pitee stikyng thurgh his herte,
 Al wolde he from his purpos nat converte.
 “Doghter,” quod he, “Virginia, by thy name,
 Ther been two weyes, outhere deeth or shame. (VI.207-214)

버지니우스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집안의 ‘연회실’(Hall)로 자신의 딸을 부른다. 이곳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아버지의 권위만이 군림하는 장소이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단’한 상태이며, 비록 딸을 희생시키기로 한 자신의 의도를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죽음”과 “수치”라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미 딸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죽음보다 참기 힘든 것이고, 또한 그가 딸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용문은 이야기와 관련하여 흔히 논의되는 버지니아의 ‘선택’ 혹은 ‘동의’의 문제가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시사해 준다.¹⁷ 그것은 사실상 반박이 불가능한 ‘주권’자로서 아버지가 지니는 ‘결단’의 문제이다. 사실 버지니우스가 생사여탈권을 행사해 딸을 죽이는 것이외에는 딸을 구해낼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덜러니가 지적하듯이, 그는 딸을 피신시킬 수도 있었고, 딸을 대신할 인물을 찾을

위해 전유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집안 내의 가부장적 권력과 국가 통치적 주권사이에는 일종의 유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Lupton 146을 볼 것).

¹⁷ 가령 파버(Lianna Farber)와 같은 비평가는 「「의사의 이야기,에서의 동의의 조성」(“The Creation of Consent in “The Physician’s Tale”)이라는 글에서 버지니아가 아버지의 논리와 힘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살해의 책임을 버지니우스뿐 아니라 그에 동의한 버지니아가 함께 지닌다고 주장한다(Farber 159).

수도 있었다. 또한 그는 뇌물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며, 좀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지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53). 즉 버지니우스는 버지니아를 죽임으로서, 딸의 생명권을 소유한 신 혹은 그의 대리인인 자연이 되고자 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주권의 논리를 통해, 다만 그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은 생명을 약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VI.235-41).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입다(Jephthah)의 딸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녀가 입다의 딸과 같은 점은 그녀도 이야기 하듯이 죄 없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다는 군주제가 등장하기 전의 ‘신의 대리인’인 사사[士師]였다)의 권위에 의해 죄 없이 살해를 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죽는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희생 ‘제물’(祭物)로 바치길 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사사기」 11:30)가 그의 서원(誓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름 없는 입다의 딸과 버지니아가 다른 점은 그녀가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주권 권력의 페러다임”으로서의 “호모 사케르”는 “살해할 수는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Agamben 218)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제의와 관련 없는 세속적 권력의 희생물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버지니아는 “신의 이름에 맹세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Dooth with youre child youre wyl, a Goddes name! VI.250)라는 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즉 허쉬(John Hirsh)가 지적하듯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신의 뜻과 동일시한다(390). 버지니아의 일화는 어떻게 ‘주권’이 ‘별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면책살해의 대상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준다.

¹⁸ 미들튼은 “그[버지니우스]는 마치 자신을 마치 신 혹은 신의 처벌이나 운명의 운행자체,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 생각한다. 그의 연설은 이야기의 서문에 등장하는 우주의 아버지의 ‘대리자’인 신플라톤적인 신이다”(He sees himself as a deity might, as the scourge and minister of destiny itself, a force of nature; his speech recalls the Neo-Platonic goddess of the preface, “vicaire general” of the universal father)라고 지적한다(Middleton 20).

IV. 주권자로서의 민중

이야기에 따르면, 재판관이 버지니아의 잘린 목을 보자 버지니우스를 잡아 빨리 목을 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곧 이를 불쌍히 여긴 수천의 사람들이닥쳐 기사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릇된 부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nd whan the juge it saugh, as seith the storie,
 He bad to take hym and anhangen hym faste;
 But right anon a thousand peple in thraste,
 To save the knyght, for routhe and for pitee,
 For knowen was the false inquitee. (VI.258-262)

「의사의 이야기」가 제시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서사 자체가 딸을 살해한 버지니우스의 폭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설득된다는 점이다. 버지니우스가 자신의 딸의 머리를 들고 법정에서 나타났을 때 그를 처벌하고자 하는 이는 오직 아피우스 밖에 없다. 민중들은 반대로 버지니우스의 행위를 정당화 해주며, 부정한 재판관인 아피우스의 권력을 전복한다. 이야기의 말에 버지니우스가 어떠한 ‘처벌’ 혹은 소위 말하는 ‘시적 정의’(poetic justice)로 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서사 자체가 버지니우스의 딸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긍정하며, 주권의 논리에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버지니우스의 행위는 이야기에서 이름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권력을 불러들이며, 이야기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질서를 전복한다.

그들은 아피우스에게 가서 그를 곧장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자결하였다. 그리고 아피우스의 수하였던 클로디우스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고 판결하였다. [...] 이 저주스러운 범죄에 동의한 지위고하의 나머지는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For which unto this Apius they gon
 And caste hym in a prisoun right anon,
 Ther as he slow hymself; and Claudius,
 That servant was unto this Apius,

Was demed for to hange upon a tree.

[...]

The remenant were anhangged, moore and lesse,

That were consentant of this cursednesse. (VI.267-76)

분명 이야기의 마지막은 민중들의 봉기로 인한 일련의 질서붕괴의 과정을 그린 다. 물론 딜러니가 지적하였듯이 초서는 「의사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민중들을 사회를 정화하는 집단적인 영웅으로 그려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56). 민중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의 결말은 급하게 맺어진다. 이들의 행동은 다분히 폭력적이며, 무정부적이며, 부조리하다. 가령, 음모의 핵심이었던 클로디우스가 버지니우스의 탄원을 통해 구제받은 반면, 조금이라도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처형되었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고, 무엇보다도 딸을 살해한 주체인 버지니우스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민중들은 마치 ‘계엄령’(martial law)의 선포아래서 법질서가 제한·중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즉심에서처럼, 자의적으로 관련된 자들을 처벌한다. 인용문에서 민중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deme”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피우스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다(VI.199, 257). 따라서 이는 다분히 이야기에 등장하는 “juggement”(VI.198), “awarde”(VI.202)와 같은 판결을 뜻하는 법률적인 단어와 동일시된다. 하지만 단어의 명사형—“doom”(VI.163, 257)—이 이야기해 주듯 이는 주권자로서의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선고라는 함의를 지닌다. 특히 이 민중이 법률적인 권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야기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민중들은 또 다른 양태의 주권적 주체로서의 ‘민중’(people)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용문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민중의 권력에 대하여 아피우스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살로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 자살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살해행위이다. 즉 그것은 예외 상태에 있어 주권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예외를 구성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행사하는 주권의 표현으로 법질서에 배제도 포함시킬 수도 없는 행위이다. 즉 아피우스는 자살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면책살해’하는 방식으로 주권자이자 동시에 벌거벗은 생명이 된다. 민중의 봉기로부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를

처벌하는데 할애되는 서사의 분량은 단지 16행(VI.260-76)에 불과할 정도로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는 급히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마치 어떠한 법 내부의 권위만으로는 이야기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에서부터 자연으로 주권이 이양되는 이야기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봉기와 아피우스의 자결로 맺는 서사의 결말도 인상적이다. 이는 마치 법질서에 대하여 배제적이며, 예외적인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의사의 이야기」의 서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주권과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라는 관점에서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물론 초서의 저작은 18세기 이후 국민국가가 주권을 형성하기 훨씬 이전에 생산되었고, 주권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생명에 스며들기 이전이다. 하지만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주권의 논리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희한하게도 창조의 섭리와 주권의 영향력에 관한 논의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정치와 생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야기는 주권이 이행되는 일련의 과정—즉 처음에는 신으로부터 그의 대리인 자연으로, 그리고 그것의 집행자인 주권자 아버지로, 마지막에는 체제를 전복하는 권위로서의 민중에게로—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러한 이행과정을 쫓으며, 생명이 주권이라는 초법적인 권력 앞에 놓였을 때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는지를 그린다. 물론 초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동시대의 생명정치를 읽어내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비약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기억하고, 관타나모에 존재하는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흥미롭다.

주제어 | 초서, 「의사의 이야기」, 주권, 정치신학, 호모 사케르, 벌거벗은 생명

인용문헌

- 아감벤, 조르조. 『호모 사케르』. 박진우 譯. 서울: 새물결, 2008.
- 슈미트, 칼.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譯. 서울: 그린비, 2010.
- 최예정. 「순결, 폭력 그리고 기독교: 초서의 의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안과밖』 1 (2001): 113-132.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8.
- Aristotle. *Complete Works*. Ed. Jonathan Barnes. Princeton: Princeton UP, 1984.
- Bloch, R. Howard. "Chaucer's Maiden's Head: 'The Physician's Tale' and the Poetics of Virginity." *Representations* 28 (1989): 113-34.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Gen.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ooper, Helen. *Oxford Guides to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Oxford: Clarendon, 1989.
- Delany, Sheila. "Poetics and the Paralysis of Poetic Imagination in *The Physician's Tale*."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3 (1981): 47-60.
- Espósito, Roberto. *Bios: Biopolitics and Philosophy*. Trans. Timothy Campbell.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7.
- Farber, Lianna. "The Creation of Consent in the 'Physician's Tale.'" *The Chaucer Review* 39.2 (2004): 151-64.
- Fletcher, Angus. "The Sentencing of Virginia in the *Physician's Tale*." *The Chaucer Review* 34.3 (2000): 300-08.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1995.
- Freud, Sigmund. "The Antithetical Meaning of Primal Word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 Ed. James Strachey and Anna Freud. London: Hogarth, 1978. 153-61.
- Hammill, Graham and Julia Reinhard Lupton. Introduction. *Political Theology and Early Modernity*. Ed. Graham Hammill and Julia Reinhard Lupton. Chicago: U of Chicago P, 2012. 1-20.
- Hardt, Michael and Antoin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2004.
- Hill, Christopher. *Change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74.

- Hirsh, John C. "The Discourse of the *Physician's Tale*." *The Chaucer Review* 27.4 (1993): 387-95.
- Hoffman, Richard L. "Jephthah's Daughter and Chaucer's Virginia." *The Chaucer Review* 2.1 (1967): 20-31.
- Lupton, Julia Reinhard. *Citizen-Saints: Shakespeare and Political Theology*. Chicago: U of Chicago P, 2005.
- Middleton, Anne. "The *Physician's Tale* and Love's Martyrs: Ensamples More than Ten as a Method in *The Canterbury Tales*." *The Chaucer Review* 8.1 (1973): 9-32.

ABSTRACT

The Sovereignty and Bare Life in Chaucer's "Physician's Tale"

Jaechol Kim

The present essay investigates the logic of the "sovereignty" depicted in Chaucer's "Physician's Tale." In the tale, a father (Virginius) cuts the head of his own flesh and blood daughter (Virginia), whereby it represents the most heinous violence in the entire Chaucerian canon. Strangely enough, however, the narrative tends to justify this extreme violence by approving the power of life and death (*Vitae Necisque Potestas*) that Virginius holds over his daughter's life as the sovereign father. This essay surveys the political philosophy or logic that resides behind this extreme violence in terms of political theology. "The Physician's Tale" begins with its debate on the sovereignty of Nature as the "vicaire general" of God, and Nature's divine inscription of Her sovereignty on the body of Virginia--as represented by her beauty and virginity--makes her as a *sacred* subject. The very sacred inscription of Nature's sovereignty upon her body, nonetheless, makes her as an *accursed* subject at the same time as her beauty and virginity invite Apicius's destructive gaze and desire for her. In other words, as its most ambiguous signification of the "*homo sacer*" denotes, because of the sovereignty inscribed on her body, Virginia becomes at once sacred and accursed being. The very logic of sovereignty makes her an object of her father's violence, since *homo sacer* is, as Agamben puts it, "the life that may be killed but not sacrificed." As a narrative of political theology, Chaucer's tale depicts how the sovereignty is transferred in the narrative--from God, then to Nature as His chief deputy, then to Virginius as the *paterfamilias*, and finally to the people who ultimately subvert the entire political order toward the end of the tale. In this process, the tale depicts how the sovereignty, as the power of defining "bare life," is deeply associated with the extreme violence that the tale represents.

Key Words | Chaucer, "The Physician's Tale," Sovereignty, Political Theology, *Homo Sacer*, Bare Life